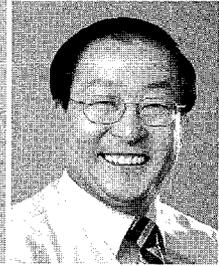


민통련, 오늘을 추동하는 역동적인 힘!



전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의장 이호웅

1949년생, 계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도서관관 형성사 대표,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 의장, 인천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 의장, 16, 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지금은 사라져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결성으로 형체화된
1980년대 중반기 민주화 운동과 그 주체들이 내게는 역사가 아니다.
오늘을 추동하는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다.

박정희의 죽음이 더욱 거친 전두환의 군부독재로 이어지고 폭압의 통치가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서울, 중앙에서의 소수 활동가 중심의 민주화운동으로는 영원히 독재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데 공감하였다. '지역으로 지방으로 민중속으로' 라는 가치 아래 연고와 기반이 있는 지역의 운동체 건설을 위해 서울을 떠났다. 나는 4대째 살아온 인천에서 이미 고인이 된 제정구 형, 김도연, 이우재, 안영근, 홍성복, 광한왕 등과 함께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인사연)을 결성하여 지역 거점 마련에 몰두하였고, 속속 건설된 진국의 지역 운동체를 토대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창립한 것이 1985년 봄이다. 우리는 영원한 청년, 민족주의자이며 혁명적 시인인 고 문익환 목사님을 상임의장으로 추대하였다. 엄혹한 현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시적 여백이 우리를 숨쉬고 사랑할 수 있게 했던 시절이었다.

전두환 군부독재는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7년 단임을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성숙한 국민의 민주의식은 이제 직접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런 민심을 읽은 신민당은 개헌헌관식을 통하여 합법적인 대통령 직선제개헌운동을 벌였다.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민주운동진영은 각 지역 단위로 직선제개헌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 투쟁의 정점이 1986년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던 5·3직선제개헌투쟁이다. 군부독재는 나름대로 이 계기에 민주세력을 일소하는 전략을 세워 민주화운동의 극렬함, 폭력성을 유발하고, 과대 선전하여 국민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는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 했다. 이 운동을 소위 5·3사태라 규정짓고 이 운동의 실천적 중심에 있던 인사연 의장인 나를 비롯해 이우재, 홍성복, 김도연 등 모든 간부들과 민통련의 이부영, 장기표, 여익구, 박계동 등 지도부 대부분에 대해 체포, 수배령을 내렸다.

삼선개헌반대운동으로 시작하여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회장이 된 나는 박정희 군사독재를 영구히 하려 책동된 교련강화 반대투쟁을 벌이다가 체적, 수배 끝에 강제징집 되었고, 복학하자마자 다시 긴급조치 9호로 만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이러한 경험은 나로 하여금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뺄보다 더 큰 것이 소위 삼십육계라는 교훈을 깊이 새겨 주었다.

1986년 5월 3일 평화적인 직선제 개헌,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집회가 무참히 유린되고, 저들의 폭력적인 진압을 눈물범벅이 된 울분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흩어져 기억없는 도피의 길로 들어선다. 각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도피하면서 이제는 도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군부독재를 끝장낼 방법론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 첩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장면들을 연출했다. 때로는 친진한 첫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과 고생을 숙명처럼 녹여내는 처를 만날 때조차도 벌여야 했던 극적인 접선 작전은 우리 시대를 산 활동가만이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이다.

1년여의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즈음에 나는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박계동과 함께 잠실의 주공아파트에 숨어 살았다. 전혀 연고가 닿을 수 없는 여자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고, 때때로 각자 나가 선후배들을 만나 보급을 받기도 하면서 흩어져 있는 동지들과는 투쟁 전략을 숙의하고 아직 합법공간에서 활동하는 동지들과는 현실적인 운동전개 방법을 강구하는 일로 일과를 채어나갔다. 공개지명수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에 원천

적인 제약이 따랐고 따라서 둘이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았다.

처음에는 밥짓기, 설거지, 빨래하기, 청소 등 생활에 필요한 잡무를 서로 나눠 하다가 무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둑을 두어 지는 사람이 일하는 내기를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 때 좀 저 줄 것을... 4년이나 선배 되면서도 내기에서는 한번도 선배노릇을 못한 것이 혹시 오늘 우리가 당을 달리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비약도 해 본다. 박계동은 참으로 성정이 바르고 열정을 지닌 동지로 내 과거사의 중심에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일이 생기면 수시로 방을 며칠씩 비우고, 집에 있다 해도 반장이나 통장 등이 벨을 눌러도 인기척을 내지 않고 없는 척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신고가 들어왔는지 어느 날 우리가 모두 방을 비웠을 때 경찰이 수색하고 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평소에 만전을 기해서 집안에 문건 하나 두지 않았기에 경찰에서도 별 의심을 받지 않은 채 넘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압박해 오는 강도는 더해졌고 육감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느낌을 함께 하고 있었다. 물론 누구도 불길한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계동이 후배를 만나고 조금 늦게 곧 들어온다고 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안에 불을 켜놓은 채 몇 차례 초인종이 울려도 인기척을 내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이 큰 소리로 “문 좀 여시오, 나 경찰이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철창 안에서 단조롭고 지루하여 피가 통하지 않는 듯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던 영어의 시절이 눈앞을 가렸다. 어떻게 하던지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침착하게 정면으로 맞서면서 기회를 보자. 심호흡을 한 후 아랫배에 힘을 지긋이 보내며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요?”

“아, 나 파출소에서 나왔는데 집에 사람은 없고 불이 켜져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이 집 주인이신가요?”

“아녜요.”

“그럼 주인은 누구신가요? 어떻게 되시는지 주민등록증 좀 보여 주실까요?”

나는 여유있게 웃음을 지었다. 사십대의 착하고 평범한 경찰의 모습에서 날카로운 의심의 기미는 안 보였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내 나이쯤 되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면 작은집 정도는 보통 아

니요? 자, 수고 많으신데 이거 야식비나 하고 돌아가세요. 가끔 들르니까 집을 자주 비우는 모양인데 염려마세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자 그는 아무 의심없이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고맙습니다.” 하며 돌아섰다. 문을 닫는 순간 고요하던 심장과 맥박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짜식 순진하긴, 1계급 특진과 큰 상금을 코앞에서 놓쳤구나.” 라고 혼잣말을 되뇌이면서도 아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재빨리 챙길 수 있는 간단한 짐을 챙겨 들고 정신없이 뛰어나왔다.

조금 있다 들어온다고 한 계동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다시 접근처를 열썬하기는 싫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길 한가? 그의 운과 위기돌파 능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방에 변화가 있는 것 정도는 들어오자마자 느낄, 그의 본능적 감각을 알고 있기에 나는 다시 돌아가 기다리는 모험은 하지 않았다.

요즈음도 가끔 박계동 의원은 정감어린 표정으로 “형, 그럴수 있어? 날 내버려두고 혼자 쉼컨드 전법으로 튀고… 빛 언제 잤을 거야?” 하며 옛날을 되씹곤 한다. 물론 예상대로 그도 방을 들어서자마자 기다리고 있어야 할 나는 없고 짐이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어 비상사태가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바로 도망쳐나와 무사했다. 당시의 세태를 잘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했지만 도피생활은 그 후로부터 한 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수배생활 중에 동지들끼리 만나서 우리는 체포된 후의 대응방법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거듭했다.

11년전인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하고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긴급조치라는 법률이 최소한의 법적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법의 옷을 빌어 입은 폭력에 다름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 후 끊임없이 이어진 시국사건 재판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부당한 군부독재권력에 일말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해 주는 게 바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법관들의 형식적 사법절차라는데 모두 동감하고 분개하였다. 그래서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저들에게 구속되는 경우 우리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단호히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며 사법부의 기생적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을 지속하자고 결의했다. 운동을 조직하고 독재권력에 타격을 주는 시위 거리투쟁 못지않게 독재정권의 단말마적 몸부림을 끝장내는데 유일하고 유효한 투쟁이 체포된 후엔 재판거부투쟁이라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인이 된 김도연, 섬세하고 부드러운 품성과 자질로 국문학을 선택했지만 시대가 민중이 요구하는 민족 변혁의 부름에 과감히 온몸을 던져 투신했

던 김도연이 특히 완강하게 이 주장을 폈다.

지금도 조용히 뜨거운 열정을 선후배 동지에게 담담히 전하던 김도연 동지의 모습이 가슴 깊이 눈물로 출렁이는 냇물을 흘러내리게 한다.

1987년 1월 12일 함박눈이 온 강산을 뒤덮던 날 오전, 나는 목욕탕에서 체포되었다. 동지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검찰조사단계부터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법원에서는 사실심리와 변론을 모두 거부했다. 단지 내가 왜 5·3인천투쟁을 주도하고 도피 중에도 계속 군사독재 종식을 위해 싸워왔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현 정권의 불법, 부당성을 지적했다. 지금 당신들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우리를 피고로 세웠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죄인으로 심판 받으리라는 외침으로 최후진술을 했을 뿐이다. 검찰의 회유나 압박, 밖에 있는 지인까지 동원하여 재판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끝까지 순응하지 않았다.

덕분에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한 부분적 민주세력의 승리와 6·29노태우항복선언 후에 많은 동지들이 가석방 내지 형집행 정지 등으로 출소하게 될 때도 나는 유일하게 제외되었다. 고지식하게 동지들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나에게 주어진 형(刑)을 더 연장시켰는데 그러나 이것도 고작 8개월에 불과했다. 내 고집을 꺾지 못한 채 그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 취임 특사라는 명목으로 군사독재 정권은 특별사면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결성으로 형체화된 1980년대 중반기 민주화 운동과 그 주체들이 내게는 역사가 아니다. 오늘을 추동하는 역동적인 힘의 원천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붙여준 여초(如初)라는 호와 함께 변혁운동에 온몸을 불사르던 그 열정을 제도권 정치 안에서도 바래지 않고 지니며 실천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은 민통련시절의 운동이 뒷받침한다고 감히 나는 규정한다.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며 어둠을 불살랐던 동지들께 그리움과 사랑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민중의 편에서 정치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마음을 민통련 20주년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다짐한다.

‘민주통일국민회의’와 ‘민중민주운동협의회’의 통합선언문

민주화와 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위해 단결하자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통일을 열망하는 민중의 요구에 따라 작년 6월 29일 발족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10월 16일에 창립된 민주통일국민회의는 그동안 내부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해 왔다. 민민협과 국민회의는 물론이고 다른 동지적 단체들이 군사독재와 맞서 투쟁을 벌이는 동안 5월항쟁이래 억눌려 있던 민중의 가슴에는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민중의 울분과 군사독재에 대한 반감은 지난번의 2·12총선에서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다. 수천명의 동포가 야수적인 군대에 의해 살상당한 광주항쟁, 국민소득에 비례해 보면 최고 수준에 오른 외채, 박정희 군사정권 아래서 누적되어 있다가 군사독재 5년간의 대형금융부정특혜, 무자비한 수탈로 인해 총과탄을 초래하게 된 경제적 모순, 족벌정치의 파렴치한 등은 지난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금 제3세계의 독재국가들에서는 민중의 저항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필리핀의 독재체제는 민중의 대공세에 밀려 붕괴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군사독재가 차례로 파멸을 맞고 있다. 이제 억압과 착취에 항거하는 제3세계 민중의 저항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제3세계의 모든 나라와는 달리 민족의 분단, 국토의 분단, 자원의 분단, 이데올로기의 분단이라는 험난한 장벽을 안고 있다. 이 치욕의 장벽, 통단의 장벽은 우리 민족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외세가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반민족적 지배세력은 이 분단을 이용하여 안보 논리를 조작, 민중의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악용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민주화와 통일은 양립된 개념이 아니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과제라는 진리가 자명해졌다. 민주적인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소수의 지배세력이 추진하는 통일운동은 민족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통일 운동은 민족의 화해와 재결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음흉한 정략에 불과하다. 지난번의 총선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외침은 크게 울렸으나 유감스럽게도 민중이 주체

가 되는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이 직업정치인들이나 대중의 용기가 부족한 데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수십년간 지배세력이 독점해 온 통일론은 결국 증오의 이데올로기만을 심화시키고 민주화와 통일은 동질성을 갖는다는 인식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이제 다시 봄이다. 25년전의 4월 이승만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던 젊은이들의 합성, 90년 봄 대학에서 일터에서 광주에서 군부의 탈권을 저지하기 위해 총검 앞으로 돌진하던 민중의 뜨거운 부르짖음이 강산에 되살아난다.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국내외적 연건 속에서 민주민주통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각 부분운동은 물론이고 방방곡곡의 민주세력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었다. 민민협과 국민회의는 발족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별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운동의 통일' '통일의 운동'을 바라는 민중의 뜻이 이렇게 치열할 때, 마땅히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니 이것은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두 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다. 이 통일은 기층운동과 일반운동 각 부분의 단체들에 군림하기 위한 통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강화하면서, 항구적으로 연대하여 민주화와 통일을 이루는 과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하려는 통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화와 통일을 민족의 지상과제로 여기는 그 어떤 집단이나 개인과도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한줌도 안되는 지배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다수의 민중이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나라, 동족이 서로 증오하지 않고 진정으로 화해하여 참다운 독립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리하여 역사 속에서 늘 소외당하고 억눌려 있던 민중이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1985년 3월 29일